

성탄의 기쁨과 소망 온누리에 울려 퍼져라

인랜드 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 ANC교회서 열려

인랜드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성탄을 맞아 지난 15일 랜초 쿠파몽가에 있는 인랜드 ANC온누리교회(담임 조강왕 목사)에서 연합 성탄예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인랜드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인랜드 지역과 교회연합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이희철 목사)가 주관한 이날 연합예배는 갓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남가주웨로십교회(담임 박해성 목사), 백연약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에덴선교회(담임 윤석길 목사),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인랜드ANC온누리교회(담임 조강왕 목사) 등 6개 교회 성가대가 참여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했다.

찬양에 앞서 조강왕 목사의 인도로 드린 연합예배는 ANC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박해성 목사가 기도, 윤석길 목사가 성경 봉독, 이희철 목사가 "빨리 가서 찾아



2019 인랜드지역교회연합 성탄예배에서 찬양하는 인랜드교회 성가대

보자"(눅2:15-20)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희철 목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아가 달려가 예수를 발견해 들은 것과 본 것

의 일치함을 확인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는 삶"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고 독려

했다.

설교 후 구진모 목사가 "인랜드 지역과 교회 연합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통성 기도를 인도했으며 강문수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인랜드 지역 교역자협의회 목회자 부부가 연합으로 헌금 찬양을 드렸으며, 박종길 목사(인랜드 영락교회)가 축도했다.

김동욱 기자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인들 따뜻한 온정 이어져

김스전기 앞 자선냄비에 530달러 기부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는 지난 11일, 김스전기 앞에 설치된 자선냄비에 530달러의 무명의 기부자를 소개하며 쌀쌀한 날씨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주철 사관은 "100달러 5장을 준

비해왔던 기부자가 준비한 성금보다 더 많은 것을 기부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현금 30달러마저 모두 넣은 것 같다"며 "매년 모금 액수가 줄어 들고 있지만 아직 한인사회에는 따뜻한 온정이 남아 있음을 보며 오늘도 힘차게 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이주철 사관은 "연말 시즌에 마음과 몸이 더욱 추울 수 있는 이들에게 남가주 한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

했다.

한편 구세군 자선냄비는 한남체인, 김스 전기, 갤러리아 마켓 두 곳과 한국 마켓 등 총 5곳에 설치가 됐으며 모금 목표액은 5만 달러다.

자선냄비 봉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성금을 보내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세군 나성교회 213-480-0714, 또는 이주철 사관 408-480-3171에게 연락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무명의 기부자가 자선냄비에 넣은 530달러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천막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내이선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남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리우링 넘버 : 122043958
 아카운 넘버 : 06209456
 센터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헬터 : 1547 S. Gramercy place., LA, CA 90019
Tel. (213)364-7289, (213)605-1983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한기홍목사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시: 2020. 1. 6(월)~10(금)/5:20am, 11(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1/6(월)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1/7,8(화,수) 5:20am 강사: 김남수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1/9(목) 5:2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1/10(금) 5:20am 강사: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1/11(토) 6:00am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GLDI 대표)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G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후 1:30, 5:30, 9:40(목)
G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크리스천 비전 Radio Korea AM 1540	오전 04:30(금요일)
미주목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G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CGTV	오후 10:00(금요일)
크리스천 비전 Radio Korea AM 1540	오후 10: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0: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한인교회 www.gracemi.com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 446-6200, Fax: (714) 446-6207

남가주벨엘교회, 2019 행복나눔축제예배 드려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 한 분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교회”로 나아가는 남가주벨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가 행복 나눔 축제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 15일 드려진 행복나눔축제예배에서 오병익 목사는 전도서 4:8절과 시 34편 1-3절을 본문으로 “참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행복을 찾고 누리자”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 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불행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죄인 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권면했다.

이어 이경미 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간증집회가 열렸다. 이경미 교수는 17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미국 피바디 음대와 북텍사스주립대학원을 졸업한 뒤, 워싱턴 캐톨릭 음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세대 외래교수로 피아노 즉



남가주벨엘교회 행복 나눔 축제 감사예배

흥연주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집회에서 [어둔 밤 쉬 되리니, 나 주님께 이끌리어, 아침 해가 돋을 때, you raise me

up, 꽃대를 향하여] 등의 찬양을 연주하면서 간증과 함께 큰 은혜를 선사했다.

오병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각 셀별로 준비한

식탁 교제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나눴다.

오병익 담임목사는 “2019행복나눔축제예배를 위해 지난 10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면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신학교, 진리 선포하고 사회 문제에 해답 제시해야”

김창현 박사 미주 대신대 제5대 총장 취임

미주 대한신학대학은 지난 16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김창현 박사의 제5대 총장 취임식을 갖고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도와 성원을 당부했다.

김창현 신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신학교는 교육 사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리 전파와 사회개혁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지식만을 교육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자기희생과 절제의 본질을 배우고 믿음과 인격을 갖춘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미주 대한신학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김창현 총장은 또 “남가주의 신학교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협의회를 구성해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동성애와 마리화나, 청소년, 가정 등 사회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며 “진리를 선포하고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신학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 축하연은 예장 대신총회와 대한신학교의 산 증인으로 예장 대신 총회장을 역임한 이의완 목사가 김창현 총장에게 축하패를 전



이의완 전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부터 축하패를 전달받는 미주 대한신학대학 신임총장 김창현 박사

달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 랄프 안 박사가 축하 메시지를

를 전했다. 또 예장 대신 총회장 황형식 목사

와 미주 대한신학대학 명예총장이자 전 안양대학교 총장인 이은규 박사가 서면으로 축하를 보내 김창현 박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김학송 선교사가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통일을 염원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가 인준한 미주 지역 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아 신학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방까지 매물당 소개합니다! **New Star Carol 뉴스타 케롤 리** 2018 뉴스타 <금탑> 에이전트!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2년을 믿으십시오

치노힐스 \$98만

방5화3.5
건평약 3300 SF
새 마루바닥
밝고 시원한 실내구조
최고학군
최고 지역

라미라다 \$73만

방7화3
건평 약 1900 SF
바이올라대학 도보거리
최고지역
현재 렌탈인컴 \$4100
편리한교통

치노힐스 렌트 \$3800

방5화3.5 건평약 3300 SF
새 마루바닥 밝고 시원한 실내구조
최고학군 최고 지역

플러튼 48만5천

방2화2 건평 약 1200
CSUF 인근
리모델링, 관리한 교통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플러튼 콘도 55만5천

방3화3 건평 약 1619
최고의 로케이션
다운타운, CSUF 인근
편리한 교통

플러튼 67만5천

방5화2 건평 약 1404
예쁘게 리모델링된 집
편리한 교통, 위치

플러튼 110만

방4화3.5 건평 약 2700
매우 넓은 단층집
올드 싸니힐 지역

부에나팍 웨어하우스 리스 \$4400

특점
약 4000sf, 5번과 91번 Fwy 가깝음, 편리한 교통
커먼웰스와 비치길에서 2블럭 서쪽

애나하임 웨어하우스 리스 \$6,000

특점
럭셔리사무실 1개 화장실 1개+ 창고
건평 약 5500SF 편리한 교통, 5번 Fwy 가깝음

부에나팍 사무실 리스 \$2500

특점
건평 약 1300SF
부에나팍 한인타운내 편리한 시설과 교통

세리토스 타운홈 55만8천

방2화3 건평 약 1,590
넓고 밝은 집
높은 천장

세리토스 69만

방4화2 건평 약 1400
완전 리서리한 모던홈
최고학군 최고지역

애나하임 새집 52만

방2화2.5 건평 약 1400
완전 럭셔리한 모던홈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애나하임 새집 58만

방3화3.5 건평 약 1700
완전 럭셔리한 모던홈
최고 위치 편리한교통

부에나팍 타운홈 42만

방4화2.5 건평 약 1300
아래층방
싸이프러스라지인근

부에나팍 72만

방3화3.5 건평 약 1600sf
호숫가 단지에 아름다운 집
밝고 환한 실내구조
부에나팍 한인타운 최고위치

싸이프러스 타운홈 54만

방3화3 건평 약 1600
게이트단지내에 있는
예쁜집, 2005년생
옥스포드 학군

싸이프러스 65만

방5화2 건평 약 1900
완전히 고쳐야되는 집
최고위치에 싸이프로스트
싸이프러스학군 아래층에 방

라팔마 타운홈 49만

방3 화2 건평 약 1300
예쁘고 잘 정리된 집
캐나다하이 도보거리

라팔마 69만

방3 화3.5 건평 약 1500
편리한 실내구조 & 생활공간
이층집 아래층방 넓은 거실
캐나다하이 옥스포드학군

라미라다 55만

방3화2 건평 약 1250
넓직한 실내구조 단층집
부에나팍 한인타운
5분거리

라미라다 99만8천

방5화3 건평 약 2708
최고의 로케이션, 고급
인테리어, 게이트가 있어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라팔마지역 메디컬 오피스

라팔마병원내 최고 좋은 지역, 자세한 내용은 문의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 리 ★

“선교하는 신학교, 원격 교육으로 전 세계 글로벌 리더 요람”

2019년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후원의 밤 열려



2019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 밤에서 설교하는 이사장 한기홍 목사



부에나 팍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19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 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최규남. 이하 GMU)는 지난 12일 부에나 팍 커뮤니티센터에서 후원의 밤을 갖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학교로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최규남 총장은 후원자들과 동문,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후원의 밤에서 “GMU는 전 세계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선교대학으로 한국

어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로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 코스를 통해 타민족과 2세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학교의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교수는 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원격 교육 시스템을 시연하며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신학 교육의 산실로 나아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 부터 큰 박수

를 받았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서 “제자를 세우는데 투자합시다”(행 16: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GMU 이사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증가하면서 한인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이 잦아져, 현지인 리더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GMU는 선교하는 신학교로서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워 끊임없는 복음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인도에도 신학교

가 세워져 졸업생들을 통해 110개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세계 선교를 향한 GMU의 노력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며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쓰임 받는 학교,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학교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레이스미션대학은 복음주의 신학교로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CS의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 학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

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으로는 기독교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 문화학 철학 박사 과정이 있으며, 유학생 1-20 비자, 연방정부 무상 학비 보조, 100% 통신교육, 영어 트랙이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이메일 admissions@gm.edu, 전화 714-525-0088,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화, 기독의료상조 대안으로 부상

저렴한 비용에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어 전국서 4만여 명 가입



토랜스장로교회에서 열린 기독의료상조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이사사 사모가 기독의료상조회를 소개하고 있다.

한인들에게 건강보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는 지난 15일,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상

조회의 건강보험 혜택과 운영방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캘리포니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제도

가 제시될 예정이라, 저렴한 비용으로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기독의료상조 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강보험 대안으로 부상한 CMM 프로그램을 소개한 이사사 사모는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비싼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부과되는 벌금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을 피할 수 없다는 한인들이 많다”며 “기독의료상조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도 피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사사 사모는 “CMM은 지난

1996년, ‘비싼 의료비 부담을 기독교인들끼리 나누자’는 취지로 미국에서의 시작돼, 현재 4만여 성도가 참여하는 의료비 나눔 단체로 성장했다”며 “집을 서로 지라(갈라디아서 6:2) 말씀을 모토로 성경적인 삶을 사는 1세부터 64세까지의 성도들이 참여해, 의료비 나눔과 중보기도로 서로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라고 설명했다.

이 사사 사모는 이어 “미국에 살면서 비싼 보험료와 높은 디덕터블로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CMM의 프로그램은 월 40불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회비는 40달

러부터 175달러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MM은 월 회비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플러스 등 4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브론즈와 실버로 등록할 경우 수술과 입원 한해서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골드와 골드 플러스부터는 의사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및 응급실 치료 혜택까지 제공받는다. 골드 플러스는 본인부담금이 1년에 500달러로 낮고 매년 500달러까지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이메일 hyenulee@christianmutual.org 전화 (213) 318-0020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2020년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제29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가 애나하임에 소재한 미주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부락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전 임원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 회장단 및 이사회와 임원들이 내년도에도 주님의 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임이사장 이호우 목사 신임회장 박상목 목사 직전이사장 민승기 목사 직전회장 이 서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정로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후 5시
- 장소 : 미주비전교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8

“왕의 군대 파송 예배” 를 올려 드리며

지난 12월 15일(토) 저녁시간에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중국인 교회 Bread of Life Church에서 연말과 연초에 단기선교 및 중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예배가 있었다. 이 교회는 타인관계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 성도들 분포는 중국 본토 출신들이 더 많고, EM은 이미 다민족 문화권으로 성장된 전 명이 넘는 교회이다. 그 교회가 이슬람권 전문인 선교단체인 인터콥 선교회의 비전스쿨을 수용하면서 이번에 선교 파송예배에 주관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교훈련에 교회가 참여하여 이번에 23명의 교인들을 단기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매년 여름 인터콥 선교회에 속한 대학청년(EMYG)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인원에 맞춰 팀을 나누어 미국 대륙을 종단 또는 횡단하면서 미국 각지의 캠퍼스와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전도를 하며 기도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을 “기도 대장정”이라 한다. 가급적 동부지역 팀은 서부나, 중부 서부지역 팀들은 동부나 캐나다 등으로 서로 교차하여 전도를 한다. 한 팀의 인원은 밴 차량 한 대에 맞추어 6-7명 정도로 이루어진다. 이때는 미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선교회 후원자들은 그 청년들의 방문과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적극 지원하면서 한 여름을 온 미주에 선교 열풍을 일게 한다.

지난 2017년 여름(6월경) 동부 팀으로 구성된 청년 6명이 미 서부를 북에서부터 남으로 종단하면서 각 도시의 캠퍼스와 교회들을 방문하며 선교 비전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사우스베이까지 내려온 이 팀들이 금요일 저녁 무렵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 마침 교회는 성인들의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할 때였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청년 대장정팀은 조용히 예배당으로 들어와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같이 드렸다.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인 마크 목사의 눈에 그들이 들어왔다. 뒷자리에 앉아 예배에 참여하는 처음 보는 청년들의 모습이 신선했고, 목사님은 궁금증이 생겨서 예배 중에 그 청년들을 향해 물었다 한다. 청년들은 누구이며, 여기에 왜 왔는가 물었다. 청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동부에서 선교비전을 나누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기 위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대장정팀인데 오늘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지나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그때 목사님은 즉시로 그럼 어떤 비전인지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줄테니까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다. 청년들이 아멘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비전, 특히 이슬람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비전스쿨”을 하고 단기선교를 간다고 전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초청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다고 선포했다.

그랬다. 그렇게 우리 전도팀은 담대했다. 그 선포가 “Bread of Life Church”의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 온 성도가 큰 충격에 빠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슬람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물었다. “비전스쿨”을 권했다. 그 후 교회는 비전스쿨을 오픈했고, 수십 명의 청장년 성도들이 수료하게 되었다.

이 날 왕의 군대 파송예배의 설교는 그 교회 담임인 마크 목사가 마태복음 28:16-20 말씀으로 “지상대명령”을 선포했다. 이제 우리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다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열방의 영혼 구원임을 확실히 깨달았노라고 온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가자고 선포했다.

그렇게 이 연말의 계절에 세상은 쇼핑과 세속의 물결로 흥청망청 하는 때 이 교회에서는 비전스쿨을 수료한 그 교인 23명을 포함 도합 91명의 장단기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다. 동시에 미지역에서는 이 날가주 뿐 아니라, 북가주 지역에서도 중남부 아틀란타, 달라스 지역에서도, 동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도 왕의 군대 파송예배는 드러졌다. 이렇게 왕의 군대는 저 열방의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연말연시를 보내고 올 것이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7) 자기 개발

“자기” 라는 정원 가꾸기!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PMP의 조합이라고 대답합니다. PMP란 행복을 구성하는 세 요소를 말합니다. 행복은 세 요소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첫째 **행복한 삶은 Pleasant life**, 즉 즐거운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 **행복한 삶은 Meaningful life**, 즉 의미가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셋째 **행복한 삶은 Productive life**, 즉 생산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발전이 있고 삶의 결실이 있는 삶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삶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자기개발은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찾기 위한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자기개발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개발을 합니다. 자기개발은 어렵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자기개발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8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기개발을 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월급이 평균 24만 원가량 높았고, 자기개발을 하는 직장인은 일에 대한 행복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개발을 하는 직장인의 일에 대한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인데 자기개발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4.9점으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직장인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는 독자들에게 자신을 가꾸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제시된 다양한 자기가꾸기 방안 중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결과가 효과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자신을 격려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사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 특기 발견하기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발전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건강한 행복에는 자기발전이 있습니다. 자기발전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발전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고 그 특기를 연마하고 특기를 개발할 때 자기발전이 분명해지고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신의 특기를 개발할 때 자신의 핵심역량이 강화되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목표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목표가 있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커집니다. 건강한 목표가 있으면 몰입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제시되는 행복학 이론은 몰입을 강조합니다. 몰입해야 행복합니다. 몰입은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몰입합니다. 또 목표가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기발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확인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을 개발하여 자기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하여 발전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기발전을 꾀하세요! 잡자는 자신을 깨우세요!! 자기발전이 행복 증진입니다.

첫째는 ‘자기 긍정하기’입니다.

행복하려면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의 근본은 자기 긍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 섭리를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가꾸어가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삶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긍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과 재능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자기 격려하기입니다.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격려는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과 현재 삶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큼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밸리 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몬트레이팍 채플

주일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수요영성집회 오후 7:45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인애교회 ICCC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 icccla.org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보를 그리는 삶.. 그 안에 하나님 위로와 평안 있어”

[인터뷰]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글렌데일 지역에 한인 중형교회로 자리 잡은 기쁜우리교회(Joyful Christain Community Church, JCCC) 김경진 목사(57)를 만났다. 인터뷰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목회자의 고뇌와 영혼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지식이 아닌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김경진 목사는 토론토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토론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밴쿠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한 뒤, 한국 의수스 교회, 나성영락교회를 거쳐 2017년 2월 기쁜우리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2019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올해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다. 얼마 전에는 인구의 98%가 힌두교인 인도네시아 산악지역을 다녀왔고, 여름에는 몽골 서부지역인 흙트란 곳에서 산재해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 인도했다. 또 실크웨이브미션을 통해 무슬림 권 개척교회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이집트에서 터키 지방 난민들을 사역할 사역자들을 만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회가 단기선교와 해외선교를 정립하고 다져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올해는 재난 지역을 위한 구호금 모금, 몽골지역 신학교 건립, Gleanings for the hungry 지원, 차세대 위한 장학사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교회의 양적, 외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자 노력했다.”

-내년 2월이면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게 된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주셨다.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가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아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지금은 교회가 사역을 펼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지역 및 해외 선교, 차세대 위한 사역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기쁜 우리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김경진 목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바보같은 분, 그 예수를 닮고 싶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사명으로 붙들고 있다. 특별히 한인들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밀알의 역할도 감당하고자 차세대를 위한 사역을 장학사업도 진행해 왔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함께 다음 세대 역시 선교지가 분명하다. 기도뿐만 아니라 전략과 재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회 창립 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두고, 프로젝트가 아니라 늘 사람과 생명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키우려고 했다.”

-교회 개척 전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주시고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감사한 마음이었다.”

-교회 건축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나?

“교회 건축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 사역은 아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때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할

때가 많다. 교회 건축 후 선교나 장학 사업을 뒤로하고 모기지에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나?

기쁜우리교회는 지금까지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 교회를 세우려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엄청난 교회당을 가졌지만 불과 10명에서 15명이 모여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많다. 기쁜 우리 교회는 현재 미국 교회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교회 예배당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선교와 더불어 미국 교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회 소신이 있다면?

“모든 목사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다.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바보처럼 예수님만 따르려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한없이 바보 같지만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 우리의 삶은 바보를 그리는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것 같다.”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이길 바라는가?

“무엇보다 투명한 목회자이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떤 덧붙임도 없이 성도들과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때로는 울면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는 권위를 세우는 모습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주신 사명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설교 때 자주 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운다. 원래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힘들어서 울어본 적은 거의 없다. 설교할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온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사랑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크다.”

-새해 교회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지식적인 교회가 되는 것 같다.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만 강한척할 뿐 그 속은 매우 부드럽고 연약하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돌처럼 바위처럼 강하지 않다.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을 교회를 통해 찾고 싶어 한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가 아닌 복음의 방식과 가치로 사람들에게 편안한 영혼의 고향이 되면 좋겠다.

목회자들도 인위적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자세보다는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다가 가면 좋겠다. 언제라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 말이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보다 진실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다.”

-미주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제는 미주 한인교회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한인교회라는 범주를 넘어 미국 주류사회로 들어가 미국 내 교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타 인종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축복된 미국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미국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뜻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길 바란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 같다. 목회자가 삶의 진정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단과 교계를 섬길 수 있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누구보다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민 교회 성도들은 상처가 많다.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본인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상처가 많으면 성도들과 부딪치게 된다. 먼저는 자신을 치유하고 성도들의 상처를 품어줘야 한다. 목회 과정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복음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김동욱 기자

미주대한신학교

미주대한신학교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가 인준한 미주 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1995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마치고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교로 인가를 받아 신학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총장 김창현 박사



이사장 류당열 박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uke 2:14)

3600 Wilshire Blvd., #1420, LA, CA 90010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임마누엘의 실증

사도행전 12:1-17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사도행전 12:1-17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숫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서 때 옥중에 광채가 조오(照耀)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중략) ...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대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과 순종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 뱃세다라고 하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물을 찢던 중 시몬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하십니다. 설교를 마친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11시가지나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 원래 고기를 잡을 때는 해가 진 후 사방이 캄캄할 때 배에 등을 밝히고 잡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다된 시각에 고기를 잡아 본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고 말하고는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했습니다. 더욱이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는 두 배에

가득 실어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경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동을 취하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으로 옮겨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성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조건을 허락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활 원칙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말씀 보장의 성과는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조건이 늘 섬기고 남을 수 있는 풍족함을 보장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임마누엘의 실증: 회개와 성령충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34)는 말씀대로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내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자 된 신분으로 많은 이적 기사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도 현실에 치중하다보니 예수님을 쉽게 망각하고 현실에 빠져들고 얽매어서 어리석은 불신앙의 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한 번 설교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어나게도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신성시하고 신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기록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행 3:13-16)고 말함으로 예전의 겉셈이 베드로가 아닌, 신앙인격 수양의 차원이 한층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일,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일들 또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의 기도

본문은 헤롯왕이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무교절이라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에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 처형될 처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군사들이 좌우에서 지키고 옥문도 지키고 서 있고,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로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밤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서며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행 12:9)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했는데, 그 집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합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 베드로의 목소리만을 듣고는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인데,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했으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못믿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폐단은 진정한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 문을 열고 베드로임을 확인하고는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옥에서 이끌어 내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는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하고는 그는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여 파숫군들을 심문하여 죽이라 명하고는 가이사라로 떠나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이 헤롯이 하는 말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행 12:22)고 아첨하는 말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총이 먹어 죽으니라”(행 12:23)했습니다.

성령에 사로 잡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처럼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배우고 갈고 닦아,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주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알기 쉬운 계시록

계시록을 알기 쉽게 풀어 기독교일보 신문에 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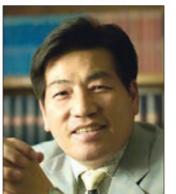
제임스 김 박사

United Westminster University 총장
교육학 박사
선교회 박사 Ph. D

T. (213)703-8523



풍성한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381-9490

서울신대, 미주성결교회와 협약식

부천 지역아동센터와도 서비스러닝 상호협력



협약식 후 기념촬영 모습. 앞줄 오른쪽부터 김용배 목사, 황덕형 총장. ©서울신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는 12일 오전 부천 서울신대 본관 회의실에서 미주성결교회와의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과 조기연 부총장, 최동규 총무처장, 조성호 학생처장, 하도균 교역처장, 신승범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하였으며, 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해 미주총회 제40회 총회장 김용배 목사가 자리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 및 정보교류 △장학금, 기숙사 편의시설 제공 △기타 협력 및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김용배 목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주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대는 전날인 11일 오전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서비스러닝 상호협력 협약식’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덕형 총장과 김진경 교무처장, 조성호 학생처장, 송규운 산학협력단장, 한수정 교육혁신원장, 최현중 지역사회봉사센터장 등 각 학교장들이 참석했다.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김옥미 회장, 한희정 사무국장 외 각 위원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인적 자원, 교육, 시설, 연구 등의 상호 교류와 공동협력 체계 구축 및 확립을 약속했다.

이대웅 기자

박효우 목사, 美 대통령 골드 사회봉사상 수상



박효우 목사(좌)와 김영찬 목사(우)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이자 풍성한교회 담임인 박효우 목사가 지난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골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멕시코 선교, 그리스도교 재조사 선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백악관을 대신해 박 목사에게 상을 전달한 효사랑선교회 김영

찬 목사는 “박효우 목사는 교회연합활동을 통해 한인교회를 섬기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고 치하했다.

박효우 목사는 “많이 부족한 사랑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를 섬기고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아프리카 차드에 한인 사랑 전한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으로 활동하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아프리카 차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차드를 중심으로 소망 우물파기, 소망 유치원 건립 사업들을 전개해 현재까지 총 395개의 소망 우물을 파 깨끗한 물을 제공했으며, 올해 건립한 소망 학교를 비롯 총 5개의 유치원을 건립해 차드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망 소사이티는 아프리카 차드에 생수 이외에 가장 필요한 쌀을 매년 연말 선물로 보내고 있으며, 올해 모금 목표는 3천 달러다.

현재 가격으로 쌀 한 포대에 25달러인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이들은 연



차드를 방문한 소망소사이어티

말까지 소망소사이어티(562-977-4580)로 문의하면 된다.

헴프 플러스, 알츠하이머에 탁월한 효과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다. 조기에 찾아내 발병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껏 최선이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인식 장애를 일으키며 도파민 생성 부족이 치매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제는 피 한 방울만으로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치매는 본인에게는 인생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동반해야 하는 인류의 큰 과제다 세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각종 암과 치매와 파킨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대마에서 추출한 CBD 헴프 오일이 건강상 안전하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전증, 암 등 많은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치매와 파킨슨 각종 암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CBD 건강 기능 식

품 전문 회사인 THEHEMPPLUS.COM(JOHN KIM회장)에서 헴프 플러스를 출시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낳고 있다.

헴프 플러스의 주요 성분인 CBD는 중풍과 알츠하이머 증세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신경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헴프 플러스는 CBD 헴프 오일과 헴프 풀 커큐민 함초 등을 숙성시켜 환으로 제조해 위에서 일부가 분해되고 대장에 이르러 발효된 기능을 발휘한다. 또 혈관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신경정신질환, 면역력 증강, 혈관청소, 암전이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헴프 플러스(HEMP PLUS)’는 연말까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40% 특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헴프 함초환은 LA 한인타운 월셔 오피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hempbiousa.com)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한인가정상담소에 1만달러 쾌척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내외가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카니정 조) 프로그램을 위해 1만 달러를 쾌척했다.

평소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호프만 변호사 내외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에 1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며 언제나 정의로워라’라는 아버지가 주신 신념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한인가정상담소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 조 소장은 “정부 그랜트는 체류신분이나 보험 여부 등의 제약이 많아 서류 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호프만 변호사처럼 건강한 한인 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분 덕분에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호프만 변호사는 UC 버클리 경제학과 UCLA 법대를 졸업 후 대형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베벌리힐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 직원들이 한인 고객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원 Credit을 드립니다.
회원 사망 시 평균 회비의 100배 금액의 장례비 지원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산부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CMM 설명회 안내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 중인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금) LA와 Anaheim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바랍니다.

213-318-0020 (이사라)
hyenulee@christianmutual.org



MERRY CHRISTMAS
대세일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2019 벤츄라 카운티 한인교회 연합 성탄 찬양예배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찬양대



뉴버리파크 브릿지교회 찬양대



벤츄라 한인감리교회 찬양대



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 찬양대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찬양대



설교하는 반채근 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찬양대



씨미밸리 침례교회 찬양대

벤츄라카운티 지역 한인교회가 지난 15일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성탄감사 찬양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찬양했다.

이날 벤츄라 지역 11개 교회가 연합으로 드린 찬양예배에서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찬양예배는 권혁래 목사(카마리아 열방교회)의 인도로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의 대표기도 후에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사랑의 찬양'이란 주제로 [그는 예수, 주안에 하나되어]를 찬양을 불렀다.

이어 '선포의 찬양'으로 씨미밸

리침례교회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성탄절 광파르], 뉴버리파크 브릿지교회가 '기쁨의 찬양'으로 [난 배를 세척 보았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를 부른 후 반채근 목사(씨미밸리 침례교회)가 마1:21-25절을 본문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반채근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찬양에서 벤츄라 한인 감리교회가 '영광의 찬양'으로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 감사해]을, 카마리오 열방교회가 '감사의 찬양'으로 [좋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를 부른 후 조인 목사(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이어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평화의 찬양'으로 [주여 평화

주소서, 메시아 메들리]를 은혜가운데 찬양했다. 폐회찬양으로 같이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부른 후에 한주봉 목사(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드러진 헌금은 벤츄라 지역 구제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빛은 그로
복음통일
복음통일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슬한 암재와 통세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출판: Pay to: G.B.M.W. 메크오더링로 기입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연말세금공제명수증 받습니다.

이런저런 무슨 차를 팔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한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사우스베이 목사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사우스베이 목사회 일동

벤츄라교역자협의회

- 회장 : 남재현 목사
- 총무 : 권혁래 목사

* 회원교회 *

- 벤츄라 한인감리교회(김민영 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장로교회(김진구 목사)
- 카마리오 열방교회(권혁래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 뉴버리파크 브릿지교회(윤종민 목사)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벤츄라 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
-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한주봉 목사)

성령을 축하합니다!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히말라야 트레킹과 신앙

당신의 삶에서 울고 있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이 울다
데이비드 플랫 | 정성목 역
두란노 | 312쪽

우리가
눈감아 온 세상.
우리가
모른 채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울다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신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영적, 육적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의 일상,
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엘라베
마 주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즈교
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차세대 미국
복음주의 인도자 중 하나로 손꼽혔
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현재 워
싱턴 D.C. 소재 맥린바이블 교회 담
임목사이며, 2011년 한국에 소개된
<래디컬: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
킴>이라는 책으로 그 이름이 알려
졌습니다.

2012년에는 <래디컬 투게더>, 2013년 <팔로우 미>, 2016년에는 <
카운터 컬처>, 그리고 이 책 <복음
이 울다>까지, 그리스도인의 확실
하고 분명한 부르심, 그리고 그 부
르심에 충성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책은 주로 강
해와 설명으로 요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프롤로그에서 그가 밝힌 것
처럼, 이 책 <복음이 울다>에서는
이전과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머리로 이해한 진리가 가슴 깊
은 곳까지 내려오려면 실질적인 만
남이 필요(22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 경험을 이 책에 담고 있습
니다. 책의 구성 자체가 Day 1부터
Day 8으로 돼 있고, 프롤로그와 에
필로그가 앞뒤를 꾸며줍니다.

간증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매우
읽기 편하고 더 깊은 호소력이 있
으며,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것의
체험적인 적용에 관한 묵상을 오
래 그리고 깊이 하도록 만드는 책
입니다.

특히 그가 매일 아침이나 저녁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본분
을 읽고 그것에 대한 묵상의 글을
본문에 기록하여, 저자가 일주일의
충격적이면서도 영혼을 일깨우는
경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 응답을 받고 교훈을 얻었

으며, 그에 따른 영혼의 진실한 고
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지 생생
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트레킹의 어려움을 독자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트레
킹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 책을 통
해 전달받고, 독자들이 위험을 감
수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만한 무언
가를 하게끔 저자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서 제목이
'Something Needs to Change(뭔
가는 변해야 한다)'일 것입니다.

저자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내가 이 책을 쓴 덕분에 당신
은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헬리콥터를 타고 세상
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날아갈 필
요가 없다.

모든 통신이 단절된 그곳에서 자
칫 사고라도 당하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한
다. 한 발만 삐끗해도 천길 아래로
떨어지는 구름다리를 건너지 않아
도 된다.

고산병이나 아메바성 이질, 여행
자 설사, 원포자충 감염, 지아르디
아증, 말라리아, 간염에 걸릴까 겁
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무
슨 말인지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나 덕분에 당신은 이 모든 위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트레킹에서 어느 정도 감
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일주일간의
트레킹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
어날지 나는 짐작조차 못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인생이나 가족,
교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
전히 변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트레킹에 동참하기를 바란
다. 어쩌면 나처럼 바닥에 엎드려
평평 울 수도 있다(24-25쪽).”



데이비드 플랫 목사. ©출판사 제공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인
애련을 만나 그와 함께 일주일간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
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비극적인
영적 실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동시에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
경을 뚫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들,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이 책은 이 모든 여정을 마친 마
지막 날 숙소 바닥에 엎드려, 자신
이 경험한 모든 것에 압도되어 그
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이 무얼 해
야 할지,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울부짖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 번역본 제목 <복음이 울다
>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
들에게 절실한 필요가 된다는 점입
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한 의약품이나
환자를 돌볼 의료진, 어린 소녀를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로 팔아넘기
는 이들을 바로잡고 심판할 사회
체제 개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해줄 경제적인 구제와 구호 활동
등 많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지만,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
내는 하나의 적용이자 실질적인 방
법이 될 수 있지만, 저자는 가장 중
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은 복음이라고 바르게 제시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믿
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복음을 뒤로 한 채 구제와 사회봉
사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
고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셨지
만,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
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시고 영접할 것을 요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도래할 하
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 즉 복음
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복
음의 일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
다. 저자 데이비드 플랫이 올바른

중심을 잡고 이 책에서 강조한 것
처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독자가 놓치지 말아
야 할 책의 교훈이 있다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입
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부르심을 어떻게 적용해
야 할지, 특히 트레킹을 통해 자신
이 직접 경험한 것을 생각하며 상
대적으로 편안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의 영역 중에
무엇을 바꿔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하는 저자를 보십시오.

이를 통해 한 번뿐인 삶, 그리스
도께서 피로 사신 삶을 어떻게 낭
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
을지 독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저자가 경고한 대로 “위험을 감
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
직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될
까?”라고 자문한다고 합니다. 그리
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 역시 저자가 경험한 일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통해
독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문
하게 합니다. “정말 뭔가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오
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침낭 속
에 누워 하루를 돌아볼 때, 함께 누
워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엎드려 울부짖을 때, 자기
영혼을 향해 소리치며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무언가 바꿔야 할 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께서 이 책을 손에 쥐고 신앙의 트
레킹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고귀한 부르
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주시기를 간
절히 기도합니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유평교회 담임

Happy Holidays

교회인쇄전문 서울 진흥문화 수입인쇄 서비스
대량교회주보,교회요람,하드커버책자,일반책자 최저가,최고품질 제공

관공서/은행/교회/기업체전문 프린팅회사
엑셀프린팅
Tel. 213.383.7733, 213.663.7733

Business Cards, Postcards, Greeting Cards, Stickers/Folders, LARGE POSTERS, BANNER BOARD, Brochures, Booklets, 풍부한 경험, 좋은가격, 친절한 서비스, 최고의 품질, 신속한 진행

GLOBAL IMPACT UNIVERSITY

전 세계에 복음으로 임팩트를 주는
글로벌임팩트 대학교의 목적
글로벌임팩트 대학교는 학생들을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탁월한 사역 역량으로 구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와 글로벌 사회에서 진실되게 섬기며 사역하게 위해 존재합니다.

글로벌임팩트 대학교의 비전
미전도 아시아 타종교권 현지인 목회자 및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이들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 세계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룬다.

교육 프로그램

- 수료증 (4과목: 총12 학점 이수)
- 대학원석사학위 (10과목: 총 30학점 이수)
- 세부전공:
 - Biblical Leadership성경적 리더십
 - Christian Church Ministry교회사역
 - Global Missions글로벌선교
 - Biblical Teaching and Preaching성경교육과 설교
 - Christian Family and Counseling기독교가정상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계 7:9)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Rev. 7:9)

Global Impact University (GIU)
2975 Wilshire Blvd. B01, Los Angeles, CA 90010
(213) 531-7215, (213) 833-8208 Info.lagiu@gmail.com
www.gimpactuniversity.org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12월19일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겨울학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개강일자 : 2020년 1월 6일

등록상담전화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축 성 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15기 준비위원장 김동욱 목사



목회자아버지학교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www.cornerstonetv.com

축 성 탄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주일예배 오후 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토랜스조은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본당



김우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토기장이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영어 예배	오전 10:00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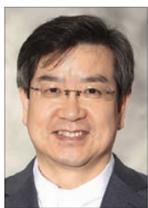


임경남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성탄축사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매년 성탄을 맞이할 때면 교회마다 성극이 열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역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굿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물들,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온 목동들이 방문 등, 참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축복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 성극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 어느 덧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쌀쌀한 겨울 냉랭해졌던 가슴이 녹여주

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마굿간은 이렇게 성극에서 연출되거나 성탄 카드에 그려진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매우 어둡고 누추하고 역겨운 냄새에 찌든 곳이었습니

다.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예수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후 333년에 세워진 현존하는 교회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교회 제단 오른쪽으로 자그마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토굴이 나옵니다. 그 동굴 안에 조그마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색깔의 별로 표시해 놓고 가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동굴 벽은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이 타오르는데 그 곳은 참으로 경건한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좀 놀라운 것은 고급스러운 커튼 뒤에 동굴 벽은 시커멓게 그을린 것 같이, 아니면 뿔가가 썩어 말라

버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치장과 장식을 치워버린다면 새 아기가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라기보다 무덤과 같은 동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목을 수 있는 여관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베들레헴 한 동굴을 찾았겠지요. 가난한 이들이 동굴을 거주지역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고, 목자들이 동물들과 함께 추위와 비를 피해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눅 2:11-12)”라고 천사들의 선포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천사들이 말한 “구유”는 헬라어로는 “그 구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유”란 목자들이 아는 “구

유”, 바로 그들이 머물렀던 그 동굴의 “구유”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곧장 그들이 거주지로 이용했던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 곳은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곳에서 목자들은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목을 놓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주로 가족도 없이 유랑하는 사회에 버림받은 천한 자들로서, 포기한 인생들의 종착역과 같은 곳이었습니

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습니

다. 그들이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그 동굴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입구 밖으로 스며 나오는 촛불을 보았습니다. 동굴로 들어갔을 때 여물통에 지푸라기가 채워지고 한 아기가 강보에 싸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인 줄 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관에 방은 없고 아내를 낳아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천사가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

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목자들의 입술에서, 세상을 저주하고 불평하던 입술, 자기의 신분을 한탄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메시아 탄생의 증거를 말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다시 들뜬 마음으로 잠들어 있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별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창조 때의 별처럼 더 유난히 빛났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처소로 섰던 마구간에 비치는 별은 너무나도 크고 밝았습니다. 그들이 지내었던 누추한 마구간 위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기대되지 않았던 그곳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느꼈던 그들의 삶의 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축사

가장 고귀한 성탄절 선물



이상명 총장
미주장신대

예수님은 폭력과 혼돈, 압제와 절망의 어둠이 드리운 시대 한복판에 태어나셨습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갓난아기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가장 큰 반전이자 역설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그 아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불품도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달고, 부활로 죽을

을 정복하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의 화신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는 인간 역사 속 가장 크고 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는 1961년에 시카고대학에 초청 교수로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신학대학 학생은 청중들에게 “바르트 박사가 건강도 여의치 않고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대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장은 그 저명한 신학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얻은 그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대학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까를 잔뜩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르트는 지그시 눈을 감고 몇 분간 생각에 잠깁니다. 얼마 후 그는 입가에 열은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치고는 너무나 소박해서 어찌하면 듣는 이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바르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을 이미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신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던지는 헌신과 희생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

도록 복돋워줍니다. 땅의 비루한 욕정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가치와 질서 속에 깃든 악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전복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하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바위틈에 뿌리내리고 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인함을 봅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나오는 산성 용액으로 바위를 녹이며 뿌리를 뻗어간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뚫는 겁니다. 처마 밑에 놓아두었던 댓돌이 빗방울에 움푹 패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포근한 대지가 날카로운 칼을 품고서 녹슬게 하여 녹이는 것도 그런 진리를 깨우 약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명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이 가까운 것일수록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영혼은 맑아집니다. 천국 권권자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는 성탄절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그져 받았으니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그져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지고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된 선물이 되는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www.eastsarang.org

초대합니다

2020 신년특별집회

2020년 새해를 맞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년 특별 집회에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1월 2일(목) - 4일(토) 저녁 7:30
1월 5일(주일) 1부, 2부, 3부에배
(1부:7시30분 / 2부:9시40분 / 3부:11시40분)

장소: 동부사랑의교회 사랑채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590.3722

강사: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목사)



결혼보다 동거·초갈등 사회... 올해 가정사역 10대 뉴스

하이패밀리 한국가정자원개발협회 선정

(사)하이패밀리 한국가정자원개발협회(대표 송길원 목사, 김향숙 사모)가 2019년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선정된 가정사역 10대 뉴스는 ①'결혼보다는 동거' 인식의 변화 ②가정폭력에서 존속살인으로 ③불법촬영,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④'스카이 캐슬'은 실재였다 ⑤장수 사회와 해피에이징의 희망 ⑥자립형 가정사역으로의 전환과 사회참여 ⑦학교 폭력의 잔혹성,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⑧수면부족 최하위, 또 하나의 흑사병으로 등장할 조짐 ⑨초 갈등 사회의 대두 ⑩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다. 다음은 그 구체적 내용.



1. '결혼보다는 동거' 인식의 변화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16년 51.9%에서 2018년 48.1%로 떨어졌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48.1%, 남성이 51.9%로 여성이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께 동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4%로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저출산, 동성애와 함께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회교육이 더욱 절실해 지는 증거다.

2. 가정폭력에서 존속살인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해 평균 1,826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존속살인은 한해 평균 69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그중 존속폭행은 2012년 793건에서 2016년 2,278건으로 5년 사이 2.9배 증가했다.(법무부 자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중인 고유정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해체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 존속살해로 이어지는 잔인성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단순 갈등을 넘어서 정신병리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범행동기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성에 있다고 본다. 교회나 사회가 감정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3. 불법촬영,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미투는 숨겨져 있던 성폭력이 피해자의 고발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드러내는 식이다. 단독 방에 올린 단편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SNS가 가진 속성 때문에 순식간에 퍼지고 한 번 퍼뜨려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공개되는 순간 순식간에 무한 재생산되어 피해를 키운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가 하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뒤따르고 있다. 가해자 집단이 연예인, 교수, 성직자, 학원강사, TV 앵커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스카이 캐슬'은 실재였다.

'스카이 캐슬'은 상류층 가정의 왜곡된 교육 열풍을 다룬 20부작 드라마로, 1%의 시청률로 시작해 최고 시청률 23.8%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드라마는 사회 곳곳에 내재된 왜곡된 교육에 대한 반영이었다. 이른바 부모찬스, 스펙품앗이, 불공정한 기회로 인한 윤리실종이 곳곳에 스며들어 부모들의 좌절과 당사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위험사회'에 이은 '차별사회'가 등장하면서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전환되고 있다. '00에서 아이 키우기' 등 학부모 교육연대가 늘고 있다. 목회의 또 다른 탐험지가 되고 있다.

5. 장수사회와 해피에이징의 희망

100세 시대의 아이코너로 떠오른 김형석 교수, 보디빌딩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75세의 임종소 할머니 등, '비바 황혼(노년)'의 응원소리가 높았다. 노년 세대를 위한 '해피에이징 스쿨'이 열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사전 묘지를 마련하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노년세대 스스로 변화되고 있다. 황혼육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고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개인양육지원 제공자의 83.6%는 조부모였다. 조부모 교육의 강화와 노년 세대를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6. 자립형 가정사역으로의 전환과 사회참여

하이패밀리가 2019년 2월, 국민일보와 공동기획으로 현재 자립형 가정사역을 시행하고 있는 104개 교회대상으로 '한국교회 자립형 가정사역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무려 93%, 불만족은 0%로 나타났다. 교회의 이런 노후와 공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한해였다. 현재 정부 주도형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에 207개가 운영되며 자리를 잡았다. 정작 가정을 더 적극적으로 선교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는 상당수조차도 교회 내에 두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 교회의 봉사와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7. 학교 폭력의 잔혹성, 수원 노래방 폭행사건

수원 노래방 초등학교 폭행사건에서 보듯이 잔인할 뿐 아니라 소년법의 강력범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7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교육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고 법무부 역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시행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정책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점점 학교폭력은 잔인해지고 연소화되면서 교육과 가정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8. 수면부족 최하위, 또 하나의 흑사병으로 등장할 조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일 수면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만성 수면 부족'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 국내 수면장애 질환자는 2016년 88만 3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아동들의 경우 예외는 아니어서 수면부족으로 10명 중 3명이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결과치는 큰 충격이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핸드폰과 미디어 기기의 자제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교육 등. 가정과 교회의 생활의 영성이 필요로 한 시점이다.

9. 초 갈등 사회의 대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펴낸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갈등지수(1.0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2위로 바닥권이다. 한국은 낮은 사회적 신뢰도(27%)로 인해 1년에 최대 246조원의 갈등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갈등 해소 비용으로 국민 1인당 매년 9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와 보수, 빈부, 세대, 노사, 남녀, 지역, 부부, 부모-자녀 갈등이 범람하는 초 갈등사회다. 소통의 기술과 갈등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10.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82년생 김지영'이 방영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밀레니얼 세대와 핀대의 두 세대로 분류하는 현실에서 영화의 화두는 '나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부모와는 '무선 팻줄'로 연결돼 있다고 할 정도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세대와의 공멸(共滅)이 아닌 공존의 과제를 던졌다. 역시 교회는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고도의 선교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의 기자

GLOBAL MISSION CHURCH
글로벌선교교회

글로벌선교교회의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사역2기 3대 비전
"The Church Vision" (1세대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within Church Vision" (차세대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Planting Vision" (사명을 위한 비전)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월-금)
오전 6:00 (토)

추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 F. (909) 396-1777
www.igmc.org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주소 및 전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493-0191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 (503) 649-399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한마음제자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2020년 성경통독 세미나

2020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 라는 제목과 함께 2월 8, 15, 22일(토) 벨리, LA, OC에서 있을 예정



김관수 목사

문의 818-402-3391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Kim Young Koo 김영구 목사

1652 w. 205th St. # 1, Torrance, CA 90501
T. (310) 404-6219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 Youth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전 10:00,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20



이정구 담임목사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483-7009

새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0:45
EM	금요일 오후 7:30,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6:00



원영호 담임목사

970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9
323-665-8643

사중복음 연구소

(The Institute for Fourfold Gospel in America)

소장 류종길 박사



1201 S. Beach Blvd. #215, LA Habra, CA 90631
T. (562) 315-9820

남가주헬로쉽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전통예배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메인예배
주일학교예배	오전 11:30	
중고등부모임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해성 담임목사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GEORGIA CENTRAL UNIVERSITY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남가주분교 디렉터 :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입학처 : 770-220-7905, admissions@gcuniv.edu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www.socalgfc.com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el. 714-952-0191 Cell. 818-521-9200

나성한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한 담임목사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21대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만나교회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	오전 11:00
Youth Group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남강식 목사

4561 W. Pico Blvd, LA, CA 90019
T. (213)365-6191 www.mannala.org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www.pubtheo.org
T.(310)738-0485



류준영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조웅철 담임목사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SK MARATHON HOME CARE

밸리지역 한국인 부모님 환영합니다. 주정부인가 사설 노인가정요양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부모님, 더 이상 가족들이 돌보기 힘드신 부모님들, 하루 24시간 돌봐 드립니다.

7246 Fallbrook Ave, West Hills, CA 91307
T. (805) 200-8100 Email: skmarathon7246@gmail.com

뮤리ета 한인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백하는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7시 30분
어린이예배, 영어학생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하모세 담임목사

16200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3-6007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직전회장 김용식 장로	선교부회장 박남수 장로
회장 김영균 장로	운영부회장 노수길 장로
수석부회장 이영수 장로	재정부회장 유문근 장로
자문부회장 마동환 장로	KCEC 기획부회장 이흥주 장로
총무 노수길 장로	행사홍보부회장 오승홍 장로

회장 김영균 장로 사무장 허영숙 권사 봉사자문위원 김신자 권사 허영숙 권사 오성애 권사

회장 e-mail: phnidallc@gmail.com • Tel. 213-598-7596, 213-321-2329

Travel of Life (성경교육연구소)

여행을 도구로 성경과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성경 테마여행 - 노아의 방주, 청교도 신앙, 대한민국 신앙유산
성지순례 - 이스라엘 교육여행, 사도바울 전도여행 교육여행

상담문의 : 스티브 전도사 (한국어)714-681-6356
Pastor John (영어)714-336-1514
주소 : 10 Centerpointe Dr, La Palma, CA 90623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관환 담임목사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최태용의 복음 교회

최태용(崔泰瑢)(1897-1950)은 함남 영흥(永興) 출신으로 김교신 처럼 일본의 무교회주의자 내촌 감삼(內村鑑三)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1924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개인잡지 「천래지성」(天來之聲)을 창간하면서 “주 내게 명령하시니……속화 타락(俗化墮落) 한 교회에 그 인위적 제도의 파괴, 생명의 신앙의 부흥을 외치지 아니치 못하는 자로라.”고 말하면서 조선의 기성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기성교회를 속화, 타락한 교회로 정죄하고, 교회의 제도를 인위적인 것으로 외칠 때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교회를 세울 의도가 드러나 있었다. 따라서 기성교회의 거부는 무교회주의와 축을 같이하였으므로 기성교회로부터 백안시되어 ‘조선기독교장로회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이단’이라고 정죄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들의 단체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은 반드시 무교회주의라는 이유 외에도 교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옛날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 박형룡이 쓴 ‘게노시스 기독교론’에 의하면, “……로고스가 성육신하실 때에 신속성(神屬性)을 포기하였다. 순육(純肉)으로 돌변하였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최태용의 신앙노선에 있던 백

남용(白南鏞)을 지칭한 것이지만 결국 최태용의 신앙노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36년경에는 신약성경의 유일회적 계시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서 자유로 사람 안에 역사하시서 새로이 기독교를 산출하시는 일을 … 나에게 일하여 영적 기독교를 주장케”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정통교회의 기독교론을 거부하고 있어서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 버렸다.

그는 1929년 일본에 다시 건너가 명치학원 신학부의 복음주의 신학자 고창덕태랑(高昌德太郎)에게서 수학하고 나서는 무교회주의마저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귀국한 후에는 일본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영과 진리」(靈과 眞理)를 통해 한국에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1930년부터 「영과 진리」의 독자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결국 교회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조선복음교회’였다. 1935년 12월 서울 소격동에 교회를 창립하면서 밝힌 이 교회의 성격은 이러했다. 1.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 교회는 조선 자신의 교회여라였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이 교회의 특성 중 제3항의 ‘조선 자신의 교회’라는 말은 외래 선교사에 의해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시작되었고, 여전히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진 교회인 현실 조선 교회는 조선인의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교회가 되려면 선교사들을 제거하고, 그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반 선교사적인 뜻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선교사를 배척하는 것이 민족교회의 형성이라는 논리 구조는 기독교의 본질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편향적이고 사시(斜視)적 기독교 이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선교사는 복음의 적도 아니고, 민족교회의 적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되어야 하는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생명의 은인들이다. 복음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복음’을 표방하는 ‘복음교회’는 몰각하고 있었다.

이 복음교회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와중에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이란 단체가 부상하면서 또 다시 교회 안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932년

당시 서울 YMCA 총무였으며,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였던 신흥우(申興雨 1883-1959)가 중심이 되어, 일단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그룹을 형성한 초교파 신앙운동 단체가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이 한국의 중심이면서도 교회의 세력은 항상 서북 세력에 밀리고 있다는 의식이 당시 서울을 중심한 남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항상 서북에 대한 경쟁의식 내지는 질투심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930년대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민족주의 의식의 대두와 반 선교사적인 경향, 그리고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서북,’ ‘반선교사,’ ‘반보수’라는 세 가지 가치를 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신흥우 중심의 적극신앙단운동이었다.

신흥우가 이 운동을 처음 시도한 것은 1927년 그가 YMCA 총무로 있으면서 ‘기독교연구회’라는 반 선교사, 반 보수를 표방하면서 ‘조선 기독교의 성립과 교파의식 문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를 만들면서부터였다. 이듬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선교사대회(I.M.C.)에 한국 대표의 한 사람으로 다녀 온 후, 그 대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토착화’ 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한국적” 기독교의

설립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발전하여 1932년 6월에 장로교회 지도자들인 함태영(咸台永), 전필순(全弼淳), 최거덕(崔巨德), 권영식(權英湜), 홍병덕(洪炳德), 김영섭(金永燮) 등과 감리교회의 신흥우, 정춘수(鄭春洙), 유억겸(俞億兼), 신공숙(申公淑), 김인영(金仁泳), 박연서(朴淵瑞), 구자옥(具滋玉) 등의 인사들이 ‘적극신앙단’이라는 단체를 발족하였다. ‘적극’이라는 말은 장로교 소속 전필순의 제의를 받아들여 붙이게 되었다. 그들은 이 단체의 강령으로 다음을 채택하였다.

1. 나는 자연과 역사와 예수와 경험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2.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을 인생생활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3. 나는 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의 권리, 의무,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4. 나는 신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개인적 취득 욕이 인간적 공헌 욕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들의 뜻은 크게 나무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단체 구성이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은 자명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국적 풍토에서 반보수, 반선교사적 경향을 띠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였기 때문이다.



올림픽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0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shalom장애인선교회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90006
Tel: (323)731-7724
www.shalommin.com



박모세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남산당 한의원

천식! 남산당 한의원에서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진료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1707 W. Olympic Blvd. LA CA 900515
T. (213) 389-9333



김용훈 원장

한미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5:30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T. (213) 739-8824



김영모 담임목사

씨미밸리한인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1부 오전 10:00
주일2부 오전 11:00
화요성경공부 오후 4:00
목요성경공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반채근 담임목사

유니온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English Service 오후 1:30
수요중보모임 수 오후 8:00
금요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T. (626)858-8300



김신일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최순길 담임목사

한우리 장로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갈보리선교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0: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8700 Stal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229-8492



심상은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오전 6:20(토)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부활절 토끼는 NO! 성탄절 산타는?”



©산타마을 빛축제

NAE, 기독교 절기와 캐릭터 관련 보고서 발표

최근 전미복음연맹(NA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북음주의 지도자들 중 52%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교회 절기에 토끼, 산타클로스 등 특정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2%, “적절하다”는 응답은 6%였다.

NAE 리스 앤더슨(Leith Anderson) 회장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모두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 매우 역사적인 절기”라면서 “미국에서는 두 절기가 모두 상업화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음주의 지도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했다.

북음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캐릭터들로 인해 성경에 나오는 성육신이나 부활의 주제가 잊혀지거나 모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크리스천 앤 미셔널리 얼라이언스(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존 스텐보(John Stumbo) 회장은 “전도에 강한 교회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기독교 절기의 영적인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금 밖에 알지 못하는 세상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캐릭터들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 마음에 우리의 참된 메시지가 제대로 심기지 않거나 흐려질까 두렵다.”

강혜진 기자

세상은 세대로 그들의 신화를 갖게 하고, 교회는 우리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자”고 말했다.

이러한 캐릭터들을 선교에 활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리치 나단(Rich Nathan) 목사는 “바인야드 콜럼버스(Vineyard Columbus)는 수 년 동안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에 아이들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해왔다. 또 우리에게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도 있다”고 전했다.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토끼를 구별해서 활용하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에반젤리컬 프렌즈 처치(Evangelical Friends Church)의 리더십 개발 담당자인 랜디 헤커트(Randy Heckert) 박사는 “토끼는 안되고, 산타클로스는 괜찮다. 우리가 마리아나 요셉 또는 다른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선행의 모범으로서 세인트 니콜라스(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성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구세군의 데이비드 허드슨(David Hudson) 사령관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행사에서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이 놓으신 구유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고 전했다.

한편, 에반젤리컬 리더스 서베이(Evangelical Leaders Survey)는 NAE 이사회가 매달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교단 대표들을 포함해 선교, 대학교, 출판사 및 교회 등을 포함한 북음주의 단체의 이사회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모의 낙태 거부로 세상에 태어나 ‘기적’을 선물한 아이



올해 7살이 된 노아 월. ©BBC 보도화면 캡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최근 낙태의 압박을 견딘 부모의 용기로 태어난 영국의 7살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주인공은 노아 월(Noah Wall), 뇌의 2%만을 갖고 태어난 그는 척추뼈가 갈리는 이분척추증, 하반신 마비 등의 증세로 며칠 밖에 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의사들은 노아의 부모인 셸리와 랍 월(Shelley and Rob Wall) 부부에게 낙태를 권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태어난 노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3살이 되었을 때, 그의 뇌는 약 80% 이상 자랐고 거의 모든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뇌가 팔다리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바꿔주는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노아의 아버지 랍 씨는 ‘뇌가 없는 소년’(The Boy Without a Brain)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해 “우리는 5번의 낙태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낙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노아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어머니 셸리 씨는 “그의 뇌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부부는 주저앉았다. 이는 마치 꿈과 같았고, 이렇게 될 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

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일이다. 담당 의사분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가 볼 때마다 의사분들은 고개를 저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노아는 매년 자신이 태어난 뉴캐슬의 그레이트노스칠드런(Great North Children’s) 아동병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치료를 통해 직접 걸어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고 한다.

노아의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클레어 니콜슨(Claire Nicholson)은 지난 2016년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해왔다”면서 “노아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노아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라면서 “매년 이분척추증 진단을 받은 태아 중 80%가 낙태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 수술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매년 낙태되는 태아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소식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친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인(2세)을 책임지며, 이인(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혼)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미지리각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교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편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교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교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13.net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중교등부 EM 오후 11: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후 7: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W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교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진성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양) 오전 11:0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분양) (소세베)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스.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약모나카 민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별 담임목사

산타모나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인미교회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름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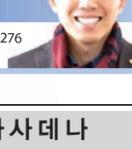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0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부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기념식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부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00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8:00 588 Alhambra Ave. Monterey Park, CA 91755
 1814 Riverside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금 5:30 / 토 오전 8:00
 T. (818)363-5887 Fax: (323) 837-590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전광훈 목사 “구속되는 것 두렵지 않아”



전광훈 목사(왼쪽)가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사. ©유튜브 '나얼아TV' 영상 캡처

“목숨 걸고 자유 지키자”

전광훈 목사가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절대로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자”고 했다.

전 목사는 이날 대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나라”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 그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또 앞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설 중 한 대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 본대회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자체 행사를 가졌다.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연설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서 위태롭게 짝이 없게 되었다”며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는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시민을 믿는다.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만 주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 목사는 “우리 국민은 자유만 보장하면 다 잘할 수 있다”는 황 대표의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을 살려 왔던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자유만 확보되고 간섭만 안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절대로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자”고 외쳤다.

한편,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전광훈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제가 구속된다고 여러분이 이 운동을 멈추겠나”라고 물으며 “구속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하용조 목사 13년 전 “논객이 없다” 한탄 다시 화제

교회, 숫자만 많지 시대정신 이끌지 못해 논객 부족해, 있어도 겁쟁이라 투쟁 못해 '세상 위한 교회 패러다임' 팀워크와 연합



故 하용조 목사.

하용조 목사(은누리교회)가 지난 2006년 전했던 설교 내용이 최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다.

교회 한 훈련학교에서 전한 이 짧은 설교가 13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예언 같은’ 메시지라며, 유튜브에서 다시 회자되는 것이다.

하용조 목사는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매력에 있는가. 이 시대정신을 교회가 끌고 가는가. 못 끌고 가고 있다. 숫자만 많았지, 교회가 시대정신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한 이야기 하나 글 하나 쓸 사람이 없다. 목회는 잘 했는데, 학자가 없다”며 “TV나 언론이나 잡지나, 이 사회에서 논객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못 끌고 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지금 보수주의나 복음주의가 할 일은 학자를 키우고 언론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0-90%가 이쪽 사람이 갖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로 낸다. 이것이 시대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하 목사는 “한국교회도 언론을 보면, 뉴스앤조이가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 통찰력 있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음주의자 논객들은 겁쟁이다. 감옥 갈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니 막 글을 못 쓴다. 투쟁을 못한다. 계속 밀린다”며 “시대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포스트모던과 종교다원주의, 이런 물질문명과 이념이 평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논객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논객이 없으니, 이제라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용조 목사는 “소위 변증 이론을 만들어서 세속화와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과 맞싸워 부딪칠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많은 선한 세력들, 하나님의 세력들이 시대정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하 목사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교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단체들이 이기적인지 모른다. 연합과 팀워크가 안 된다. 이것을 뚫어야 한다”며 “운동권들은 서프라이즈와 오마이뉴스, 전교조 전공노 등 다양하지만, 전부 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 각자이지만, 큰 세력이 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의 이론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며 “숫자는 소수다. 20%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80%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치지 못하고, 논객이 없고, 겁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누리교회는 이 시대정신을 이끌어가지”며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비전과 힘과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보내자”고 역설했다.

이대웅 기자

하 목사는 “1970-199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대표했다. CBM이나 기드온 등이 영향력이 있었다. 1세대 선배 크리스천들이 잘 끌고 갔다. 그 사람들이 기업을가서 다 재벌이었다”며 “지금은 ‘크리스천 재벌’이라는 게 없다. 이랜드, 알로에마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빌리 그레함도 있었고, 엑스플로도 있었다. 옛날에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다. 환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등이 계셨다”며 “그러나 요즘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전교조가, 노사모가, 노조가 사회를 끌고 간다. 기독교는 그 소리가 다 묻혔다”고 지적했다.

하용조 목사는 “결론,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정신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첫째 ‘논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시대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논객을 교회가 만들지 않았다”며 “운동권이나 386 세대를 대표하는 노사모를 지원하는 교수들이 700-800명이라고 한다. 이번 (노무현) 정권 들어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연구소, 학교, 정부, 조직에 이들이 다 들어갔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정부를 보호하고 글을 쓰고, 기존 보수 세력을 끌어내는 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사학법에 관

힐송 브라이언 휴스턴 등, 백악관서 트럼프 위해 기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힐송교회 설립자인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를 비롯한 예배 인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백악관의 초청으로 모인 이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벌 오피스(Oval Office)와 캐비닛 룸(Cabinet Room)등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진행하는 '신앙 브리핑'(faith-briefing)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를 비롯해 벨엘뮤직 설립자인 브라이언과 젠 존슨(Brian and Jenn Johnson), 카리 조브(Kari Jobe)와 그의 남편 코디 카니스(Cody Carnes), 트럼프 신앙 고문인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목사, 벨엘 뮤직 리더이자 NGO 단체 '라이트 어 캔들' 설립자인 셴 포이트(Sean Feucht) 등이 참석했다.

휴스턴 목사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난 백악관에 있다. 절대 안된다"고 말하지 말라"면서 "백악관 캐비닛 룸에 초대 받아서 큰 영광이었다. 심지어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게 있어 이는 정치가 아닌 위치(position)에 관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카리 조브와 카니스 부부 역시 트위터에 관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브는 "우리는 종교 자유의 문제 등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소외된 자들, 인신매매를 당한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하루종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작곡가인 카니스는 "오늘날 백악관 밖에서 신앙적인 공동체와 전 세계를 위해 많은 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격려를 얻었다"고 전했다.

포이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예배와 기도를 위해 당신을 초청할 때, 그대로 한다"고 했다. 또 "많은 이들이 미국을 저주하고 이 행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는 축복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배 인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백악관의 영적 고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 목사가 카리 조브와 그녀의 남편을 비롯한 기독교 음악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신앙 브리핑'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강혜진 기자

美 유명 침례교 목사 "영적 탈진" 사역 중단 선언



하워드 존 웨슬리 목사. ©알프레드 스프레드 바티스트 교회 제공

"날 돌볼 필요가 있다"

216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한 침례교 담임목사가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위해 사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 하워드-존 웨슬리(Howard-John Wesley) 목사는 지난 12월 1일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감쪽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이 교회를 섬겨온 그가 사역적으로 너무 탈진했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껴 일정기간 사역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4월 1일까지 목회자로서 가진 모든 책임을 내려놓겠다. 빈껍데기 상태로 쏠아낼 수는 없다. 목회자가 메달라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나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룻밤의 잠을 통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지쳤다"고 했다.

약 1만 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기 전, 웨슬리 목사는 '셀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안식의 가치에 관해 전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에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담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받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과 갈라디(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학교 오전 1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30
Y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진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독무임 오전 9:30 수요일에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오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평양정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에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20 토요일에 오전 9:30
청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화세 모든 것을 가는 복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신교를 배우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w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매월 두번째 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희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김인철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신원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임경남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입양될 원하는 12살 소년, 조나. ©WFAA

수년 동안 텍사스 탁아소의 도움을 받아온 12살 소년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가정을 허락해주시길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나(Jonah)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직 성(姓)이 없는 요나는 딸러스의 ABC 계열 방송 WFAA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수요일의 아이'(Wednesday's Child)에 등장했다.

요나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 황금물은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난 이렇게 해왔고, 최소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

탁아소에서 4년 동안 지내온 요나는 현재 입양 가정을 찾고 있다. 그는 "입양되길 원하는 이유는 내게 가장 잘 맞는 가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등생인 그는 작년에는 멀티테스커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기도 했다.

WFAA의 '수요일의 아이'는 텍사스 가족보호서비스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입양되길 원하는 아이들의 삶을 보여준 다.

강혜진 기자

동성애 동아리는 되고 기독교 동아리는 안 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미국 뉴욕의 한 학군(school district)이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를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The First Liberty Institute, FLI)는 11일 와핑거스 센트럴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Daniela Barca)가 기독교 동아리 'OMG! 크리스천 클럽'(OMG! Christian Club)을 조직하게 해달라며 로이 C. 켈참 고등학교(Roy C. Ketcham High School)에 제출한 서류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동아리의 설립 목적은 격주에 한 번씩 학생들과 모임을 통해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며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동아리는 너무 '배타적'이고, 공립학교는 종교 동아리를 후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르카의 요청은 거절됐다.

FLI의 케이샤 러셀 상담가는 "켓참 학군 관계자는 다니엘라의 종교적 발언으로 그녀의 기독교 동아리를 거부함으로써 1984년 제정된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이 법안은 35년 동안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대로 평등접근법은 "연방의 지원을 받는 공립중고등학교는 '종교적, 정치적, 철학적 또는 기타 내용에 기반한 공개 포럼 안에서 모임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포럼을 열 수 있는 공정한 접근이나 평등한 기회'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켈참 고등학교는 '프라이드 클럽'(Pride Club)이라고 불리는 LGBT 옹호 동아리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동아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스 캐리슨(Jose Carrison) 교육감은 11일 'The Washington Free Beacon'에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평등접근법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대강절의 촛불”

◇요한복음 1장 9절

12월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강절의 네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강절의 기간에는 특별히 기다림을 상징하는 네 개의 촛불을 밝히곤 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의 촛불은 보라색(purple)으로서 소망의 촛불(Candle of Hope)이라고 부릅니다. 이 촛불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며 밝히곤 하는데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촛불은 보라색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준비의 촛불(Candle of Preparation) 혹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이 촛불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고함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켜는 의미인 것입니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대강절의 세 번째 초는 분홍색(pink)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Candle of Love)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이 촛불을 밝히며 우리도 사랑의 촛불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네 번째 초는 또 다시 보라색 촛불입니다. 넷째주의 보라색 초는 기쁨의 촛불(Candle of Joy)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큰 기쁨이 됨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마지막 다섯째 초는 흰색(white)입니다. 우리는 이 촛불을 그리스도의 촛불(Christ Candle)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일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한해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강대상 앞에 켜져 있던 촛불을 기억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예배당에 발을 디디던 순간 우리에게 따듯함을 가져다 줬던 대강절의 촛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는 한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네 번째 촛불을 켜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우울증과 더불어 비방과 욕설이 담긴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설리씨와 그 후 40일 만에 자살한 구하라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비방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비판은 '올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방은 '무너뜨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방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작은 비판으로 하였지만, 끝이 비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비판을 할 때, 먼저 자신 스스로를 살피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의 지적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하게 여길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벤엘로 올라갈 때 젊은 아이들이 벤엘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

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 합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곧 수풀에서 암 곰이 나와 아이들을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인 것입니다.

벤엘은 엘리사에게는 선지학교가 있는 장소이지만, 사실 벤엘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장소입니다. 종교 타락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기 보다 결혼 전의 청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몇 명 만 에워싸도 상당히 위협적인데, 우상숭배의 배경을 가진 4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외쳐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고대 근동에서 '대머리'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표징으로 간주되었는데, 대머리가 문둥병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당신의 대머리는 문둥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과 '당신도 당신 스승인 엘리야 처럼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왜 이 벤엘 땅에 발을 디으려 하느냐?'하는 악의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저들에게 저주하자 하나님께서는 암 곰 둘을 보내셔서 사실 이 명이나 되는 저들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올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인가 '무너뜨림'을 목적으로 하는 '비난'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확실하지 않은 '~ 카더라'는 근거 없는 말에 거짓에 거짓을 보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 축하의 밤을 맞이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12월 25일)이 있기 전 가장 가까운 금요일에 때 교육국이 주관하여 성탄절 특별 행사를 합니다. 영아부의 아기들은 함께 모여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즐거움과 행복인데, 예쁜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영아부 보다는 자유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한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보는 이를 기쁘게 하고 활짝 웃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한어 유년주일학교는 한결 의젓하게 찬양하며 율동하지만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눈에는 예쁜 아기 천사와 같아서 행복합니다. WG와 JVT, 한 어중고등부와 영어중고등부는 청중들과도 교감하는 세련됨이 있는, 보물처럼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연신 사진과 동영상은 찍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보는 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평화의 축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할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님을 깨닫고 사흘 길을 돌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데는 잠깐이면 되지만 다시 찾는 데는 사흘 길이나 걸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예수님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많이 모인 사람의 숫자나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연조나 모두가 안다는 높은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하러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 내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축제의 분위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캐물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축제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분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였듯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밤하늘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약 6천여 개의 별들 중에서 한 별을 바라보며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며,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보물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별을 보는 새벽예배가 쌓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넘어서 이기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초청합니다



이춘근 박사
Lee Choon-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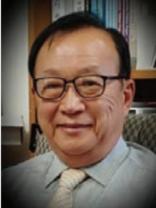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텍사스대학교(U.T) 정치학박사
(논문: 중국적 국제질서에서의 전쟁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대 경영대 국제사무학과 겸임교수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 신앙 강연회

- 일시 : 2020. 1. 4(토) 3시, 5(주일) 3시
- 장소 : 시온성결교회(워싱턴 + 웨스트모아랜드)
2149 Washington Blvd., L.A, CA 90006
- 행사총괄: 안신기 목사(909-677-0028)



고문단대표
한기형 목사
(남가주 교회협 직전회장)



대회장
황선철 장로
(미주 CBMC 서부총회장)



대회장
이형숙 회장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



대회장(협력)
김희창 목사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주 관 : 미주 CBMC서부총회(회장 황선철 장로),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회장 이형숙)
공동주최 :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JAMA(회장 강순영), KCBC 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남가주유교동지회(회장 최만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회장 김해룡)
 영광장교회 미서부지회(회장 진재곤), 미주포병전우회(회장 권영규)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이재권),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회장 노인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말제전
공미로고
마그넷&임플란트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년 내 사고영향 없이 원상복구 보장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헴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완화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김한요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 주일 7:15 AM /본당
- 주일 2부 예배 : 주일 9:15 AM /본당
- 주일 3부 예배 : 주일 11:30 AM /본당
- 주일 4부 청년예배 : 주일 2:00 PM / 본당
- 수요말씀여행 : 수 7:30 PM / 본당
- 목요 중보 기도회 : 목 10:00 AM / 찬양 채플
-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 토 6:00 AM / 본당
- 주일 레위기모임 : 주일 1-3부 예배시간 중 / 컨퍼런스룸
- 주중 새벽 기도회 : 화-금 5:30 AM / 본당

베델한국교회 BETHEL KOREAN CHURCH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Fax: 949-854-4018 Office: bethel@bk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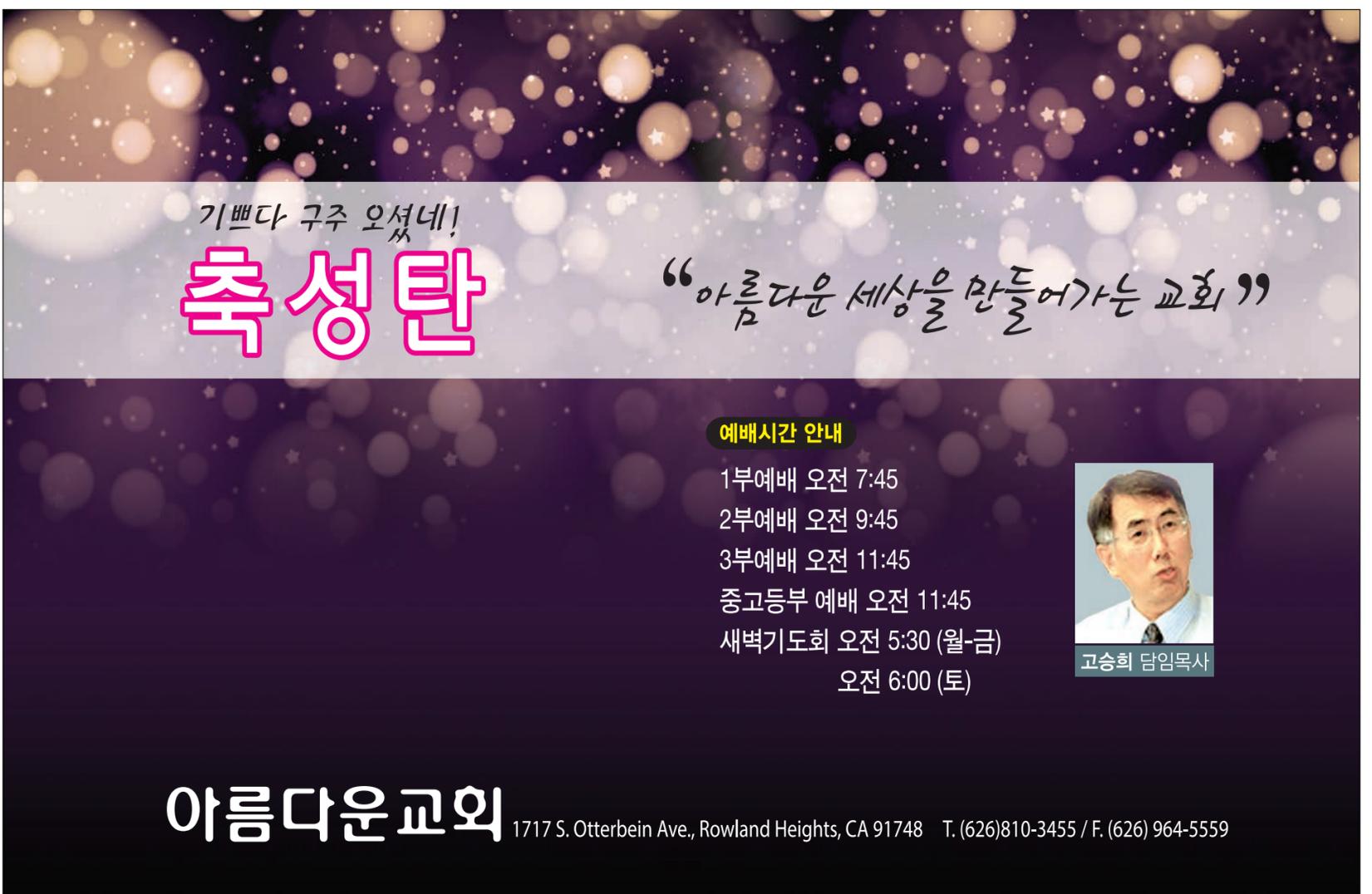
ANC 온누리교회 축성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hope makes all things work, and love makes all things beautiful.
May you have all three for this Christmas."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모두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요15:5)
Being One With Christ, Bearing Abundant Fruit (John 15:5)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_ 김태형 / ANCC 영어목회 담임목사_ 마이클 이

ANC 온누리교회
SUNLAND CAMPUS / BAKERSFIELD CAMPUS / SAN ANTONIO CAMPUS / INLAND CAMPUS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_ 818. 834. 7000 | F_818. 899. 8355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제50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제 50대 회장단 취임식과 신년하례식에
귀한 내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정중히 초대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주후 2020년 1월 5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한미장로교회 (김영모 목사 시무)

제50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조직

▣ 회장단

회 장 : 정완기 목사 수석부회장 : 조병국 목사
 부회장 : 김영모 목사, 장부영 목사, 박광재 목사, 이영대 목사, 정종윤목사, 최정남 목사, 김영배 목사, 김상현 목사, 엄규장 목사
 총무 : 나승렬 목사 부총무:박기덕 목사, 정승용 목사 협동총무: 전승용목사, 나주옥 목사
 서기 : 류경석 목사 부서기:김사무엘 목사 회계: 김바울목사 부회계:정다윗 목사
 감사 : 최영화 목사, 다이앤신

▣ 이사회

상임이사장 : 박준형 목사
 상임이사 : 백종윤, 다이앤신, 김창현, 박효우, 최영봉, 김재울, 박광재
 홍성표, 노인수, 최영하, 이우형
 운영이사장 : 부이사장 : 서영수 장로 이사: 장춘근 목사
 후원이사장 : 강유남 목사

▣ 위원회

신학위원회:임균만 목사	선교위원회: 김창영 목사	교육위원회: 신관호 목사	홍보위원회:전홍식 목사
재정위원회: 김창현 목사	남북통일위원회: 김영석 목사	평신도교육위원회: 진석호 목사	청소년위원회 : 전동석 선교사
음악위원회: 조준석 목사	성가위원회: 노혜숙 권사	관악위원회: 정창균 목사	여성위원회: 김인숙 목사
예배위원회: 이다윗 목사	원로위원회: 최경일 목사	국제위원회: 장태원목사	사회복지위원회: 최만규 목사
체육위원회: 문아리 목사	유년위원회: 전홍식 목사	가정사역위원회: 정요한 목사	장애우사역위원회: 정경희 목사
군선교위원회: 엔디차 목사, 김병호 장로	공화사역위원회: 김용섭 장로	교회공신력위원회: 김창곤 장로	교회부흥위원회: 정종윤 목사
선교방송위원회: 이재덕 목사	어학향상위원회: 고아론 목사	건강추진위원회: 김용훈 장로	자연건강위원회: 이지춘 목사
봉사활동위원회: 글로리아 최 선교사	구제사역위원회: 김용준 목사	장학사업위원회: 정종오	노숙자대책위원회: 조영림 선교사
노방전도위원회: 고무디 목사 장요셉 목사	식단봉사위원회: 전임옥 선교사	찬양사역위원회: 손사라 목사	법률상담위원회: 케빈장 변호사
영성성장위원회: 박기덕 목사 정신구 목사	문서선교위원회: 전지승 목사	CPA: 찰스정	운전상해위원회: 폴 강 목사
종합보험위원회: 허만건			

▣ 사업계획

50주년 기념 출판, 교회력 행사 지원 및 실시, 부활절연합예배, 8. 15광복절 기념 행사, 각종 체육대회 (배구, 탁구, 골프,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합기도, 종합), 영성 훈련 세미나(성경 세미나 부흥회 영성 훈련), 노숙자 복지사업 및 사랑의 쌀 배급, 북한 아동 영양실조 사랑의 쌀 지원, 장학사업 (목회자 자녀 및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연합성가축제 및 찬양 세미나, 전도영성집회, 원로목사 복지 및 위로회, 개척 및 미 자립 교회 지원 사업

문의 : 나승렬 목사 T.(213)884-8156

※ 혹시 성함에 오탈자가 있을 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조직상 추후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